

하느님 나라 십자가의 길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심홍보 지음

기독교서적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며	4
십자가의 길 14처	6
십자가의 길 0 가톨릭 기도서	8
십자가의 길 1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코 복음)	23
십자가의 길 2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오 복음)	39
십자가의 길 3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루카 복음)	60
십자가의 길 4 다 이루어졌다(요한 복음)	85
십자가의 길 5 두려워하지 마라(사도행전)	108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며

지난 2014년 사순절에는 성가정을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재의 수요일 다음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가톨릭기도서의 십자가의 길을 바쳤고, 사순 제1주간에서 사순 제5주간 금요일까지,

첫 주간은 ‘일반 개인 차원의 주님을 향한 영성의 길목에서’,

둘째 주간은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셋째 주간은 ‘부부의 정을 기리며’,

넷째 주간은 ‘자녀의 꿈을 이루며’,

다섯째 주간은 ‘교회 공동체 차원의 사도직 활동의 여정에서’라는 주제로 성가정 십자가의 길을 써서 바쳤습니다.

사순 시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2015년에 바칠 십자가의 길의 주제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교구 사제피정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이번에는 네 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둘째 주간은 ‘교회를 주체로 묘사한 마태오 복음의 하늘 나라’를,

셋째 주간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루카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넷째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요한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다섯째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각 복음에 그려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꾸몄습니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이 현실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십자가의 길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성큼 더 깊이 다가오며 주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주님과 형제자매들과 세상과의 친교를 통해 조금씩 한 걸음씩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느새 다가오는 2015년 사순절 때문에 바빠 글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교정해 주신 김동호 신부님과 본당 수녀님들과 신자분들, 표지 사진을 남겨주신 고 유영훈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님과 간지 사진을 보내주신 김귀웅 토마 신부님, 그리고 출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기쁜소식 전갑수 사장님과 편집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사순절의 문턱에서
삼성동 성가정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 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 2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제 3 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제 4 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제 5 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제 6 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제 7 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제 8 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제 9 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제10 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제11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니다.

제12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제13 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제14 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십자가의 길

- 가톨릭 기도서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선고를 받으셨으니
-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에서
- 저희를 구원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에 눌러 넘어지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사랑을 복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으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두 번째 넘어지시는 고욕을 당하셨으니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지 못하고
다시 죄에 떨어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세속과 육신의 간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이 헤어지셨으니
저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시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품을 찾아 듣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수난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에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죄수로 군중 앞에 서시는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셨으니

저희도 주님과 같이

몸과 마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에 못박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모님 품안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그 품안에서 죽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돌무덤에 묻히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르 15,34)

-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나라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수난의 세례를 예고하십니다.

그 세례의 잔이 드디어 사약처럼 내려졌습니다.

사형선고를 통해 시작되는 수난의 세례

그 수난의 십자가의 길에 저희도 동참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들을 뽑으시어 사도로 명하시고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시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도 사적인 탐욕에서 벗어나

하느님 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 일러주신 이 두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모님은 함께 십자가의 수난을 겪으십니다.

저희도 성모님과 같이 주님을 따르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자
친구들은 지붕을 벗기고 병자를 예수님께 내려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키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여
세상을 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 쿴!” 하시며 일으켜 살려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난 여자 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 주님을 위로합니다.
그날 베로니카가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듯이
저희도 주님의 상처 난 마음을 닦아드리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서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쓰러질 지경입니다.
주님, 하나라도 더 많이 더 빨리 갖고
더 높이 오르고 싶어
탐욕스럽게 기도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자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께서 겪으시는 수난과 고통보다
저희의 아픔과 간절함을 헤아려 주십니다.
늘 저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굽어보시고 안배하시어
저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리라는 예고를 듣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십니다.

주님, 늘 나와 가정의 안위에만 얽매어 있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친지와 이웃도 돌보게 해주시고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도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엘리아와 모세와 함께

세상을 구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새하얗게 빛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벗기면 벗길수록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와 허물도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무고함과 거룩하심만 드러나며

오히려 사람들의 속내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의 탐욕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형제자매들의 곤경과 아픔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겜옷을 길에 깔며 환영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채워주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늘 주님께 이것저것 청하면서도

청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떠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고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역에서 몰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불신과 원망과 질투의 제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만을 바라보십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저희도 주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며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도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홀로 버려진 예수님의 시신이 외로이 남겨집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
구세주의 시신이 낙엽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떳떳이 서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주님 곁에 있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빌라도와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지나가던 이들도 모독합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다른 죄수들도 비아냥거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물리적 현세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마치 죽어계신 듯한 예수님을 우리도 무시하고
우리 삶 속에서 배제하고 짓밟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단맛만 삼키고 조금만 써도 뱉어버리고 저버립니다.
주님, 불충한 저희를 굽어보시고 사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54)

- 마태오 복음의 하늘 나라 십자가의 길 -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죽게 만들었던 악마의 계교로

죽음에 처해졌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는 이웃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소외시키거나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의 갈릴래아로 가서

주님의 구원사업을 이어가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주 예수님,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몰약은 시신에 바르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자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두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탄생과 생애의 전체는

우리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형선고를 받으심으로써

희생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 뜻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함께해주심을 비는 까닭이

주님께서 저희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달라는 것이어서

정말 몸 둘 바를 모르지만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으시니

매달릴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저희 교회와 함께하시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물질 진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세상은 거대한 구조악 속에 파묻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은 스러져갑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물질만능의 세상 속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하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악마가 ‘돌을 빵이 되게 하면,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받쳐,

사람들이 우리러 볼 것이다.’ 하며

‘악마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했으니,

결국 그 모든 악마의 유혹이 하느님을 멀리하고

현세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손잡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라는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모님만은 마음속 깊이 하느님 사랑을 품고 계셨으니,

예수님의 외롭고 힘겨운 십자가 길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외롭고 힘겹게 인간 구원을 향해

세상의 악을 헤쳐 나가는 이들의

동반자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시며,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하여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는

인간 모두를 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로마 병사의 강압으로 원치 않게 맡게 된 역할이어도

키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을 도왔으니

우리 죄 사함의 희망이 되나이다.

주님,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늘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일에

얽매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러 저러한 일들 때문에 매일 매일 걱정과 고민 속에 삽니다.

주님,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수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듯이,

저희 교회도 외적 행사와 잔치에 얽매이기보다

주님과 형제자매들과의 영적 친교에 힘써,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실현하며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교회의 본질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께 세상의 짐을 벗고

쉬러 가는 것이 아니고

탐욕과 질투와 원망의 탐에서 내려오거나

그 야욕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세상의 짐을 한껏 가지고 와서 주님께

덜어뜨우며 해결해 달라고 투정을 부려

더욱더 주님을 힘겹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현세의 권력과 야욕의 사슬을 초월하여

복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안겨서

주님께서서 내려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굶주린 이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고는

제자들이 통틀어 가져온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오천 명 가량의 군중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을 겪는 예수님을 안쓰러워하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거꾸로 위로하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잘잘못을 지적하며 안타까워만 하기보다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 복음을 실현하는 기적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는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빵의 기적을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하여

군중들에게 신나게 빵을 나누어 주었으면서도,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시달리자

주님 기적의 의미와 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허둥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호수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지자

그들은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러댁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는 무슨 일이 닥치면,

그 일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지 재앙인지 몰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허둥대며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주님, 늘 매달리기만 하여 주님께 짐만 되는 듯한 저희 교회가

항상 저희와 함께하시어 길을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향해 올곧이 정진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옷 벗김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인간적인 전통과 관습에 매달리거나

내적 문제와 어려움에 갇혀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헤쳐 나감으로써,

교회의 본질인 진리와 사랑이 드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내적 문제들도 복음화 되어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는,

오늘 우리 죄값이라는 못으로 십자가에 박히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악이 주도하는 현세의 각종 유혹에 빠져 주님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기업이나 기관처럼 행세하며 주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구원사업에 방해가 되는 또 하나의 짐이요 못이 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풀어헤치는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하신 인류가 죄를 짓고 악의 노예가 되어 인류의 힘만으로는 죄악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 것을 보시어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을 지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 인류를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로마의 백인대장과 병사들이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주님의 뒤를 따라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수난을 겪으며 죄악과 죄악의 폐해에서 형제자매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가장 작은 이가 되시어
땅에 내려오십니다.

현신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신 채

마치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슬픔과 어둠 속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체로 내려오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떨고 목말라하는 사람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

아무도 함께해주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분노와 억울함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워 절규하는 사람들

생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에게
부활의 표징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구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시며,
 생명의 빵을 내주셨고,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하시며, 죄사함의 피를 내주셨으며,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모조리 다 내어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생명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양적 성장과 물질 풍요를 지향하기보다
 이 땅에 생명을 나누고
 어렵고 힘겨운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정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 데 헌신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을 살아
 현세의 한계와 죄악과 절망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로
 영원한 하늘 나라로 넘어가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루카 23,34)

- 루카 복음의 하느님 나라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하느님이신데도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조건을 취하여 오십니다.

마치 무기력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의 처지를

알아주시기라도 하듯이……!

주님, 저희도 주님의 가난하고 약한 탄생을 본받아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시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성경을 읽으시고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외롭고 힘겹게 지내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주님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나눔으로써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며

자기를 도우라고 일러달라는 마르타에게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즐겁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갈 곳, 먹을 것, 놀 것,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 참 쓸쓸하고 외로우시죠!

저희가 세상의 좋은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도

기억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 집안의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다가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자,

성모님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길인데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셨던 어머니

오늘 그 힘겨운 길의 절정에서 아들 예수님의

수난을 함께 겪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힘겹고 어려운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는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시메온은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봉헌하는
예수 아기를 받아들고
성령에 이끌리어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하십니다.

“이 아기는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오늘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이며 기쁨이신 주님,
구원자이시며 희생 제물이신 주님을 알아본 시메온과
잠시나마 주님을 도왔던 시몬처럼
저희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안에서 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호소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간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처녀가 아기를 배었다고 모두 다 뒤로 수군거리며

부정한 여인으로 몰리고 비난을 받았던 성모님은

자신을 유일하게 기쁘게 맞아주고 칭찬해주던 분이 계셔서

겨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죽이려는 가운데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가

주님 말씀을 나누고 이름으로써

저희도 행복한 이들이 되어

주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저희는 노후와 비상사태를 대비한답시고
 조금이라도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
 이웃의 호소를 못 본 체하여,
 주님의 가슴을 쓰리게 하고,
 상실감과 허망함으로 쓰러지게 합니다.
 주님, 저희가 쌓으면 쌓을수록 더 필요한 재물보다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형제자매들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죽어서 저승에 떨어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저지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피하며
 현세의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낮게
 아니, 최소한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
 어느 누구와 나를 공유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가끔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이 없나?’ 하는
 생각마저 품고 삽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신 주님,
 주님을 믿으면서도 현세와 탐욕에 억눌려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저희를 위로해 주소서.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되어 현세를 초월하여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간직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주고 복권시켜줍니다.

저희는 주님께 늘 달라고만 청하고

혹시라도 얻으면, 어서 가서 써버리기 바쁘고

다 쓰면 또 달라고 매달려

지치고 지친 주님을 결국 쓰러뜨리고 맙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얼굴을 들 수도 없사오나

저희를 굽어보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바리사이는 기도하러 가서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라고 자랑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시며,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저것으로 치장하고, 소유하고, 휘두르며
세상에서 가진 자요, 유력자로 행세하려는
허황된 마음에서 깨어나,
겸허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시간이 되자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며 말씀하십니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시는 생명의 아픔은 참으로 커 보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자매들과
저희 삶을 공유함으로써

마지막 그날까지 파스카의 축제를 계속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또 다시 십자가의 아픔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더라면,
자신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가

그렇게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면서도

계속 청하고

또 이루려고 하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주님과 다른 이들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또 다른 피를 부리며 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캐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약속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차디찬
시신으로 내려오십니다.

저희도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갚아드리게 하소서.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 죄악으로 죽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그 은혜를 형제자매들과 공유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재차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사시기에 현실 세계에서는 냉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마치 영어의 몸처럼 무덤에 갇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일러주시고 깨우쳐주신

그 영원하고 진실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생명을 되찾으십니다.

측은지심을 베풀어주시는 주님,

무지몽매하고 고집만 센 저희가 저지르는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서 베풀어주신 생명으로 새로 나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세상 곳곳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시달리는 이들이 부르짖는

매일의 호소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 뵈므로써

주님께서서 저희 교회에 내려주신 사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제인 복음화를 이루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다 이루어졌다(요한 19,30) - 요한 복음의 하느님 나라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청하시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리를 두시면서도
 어머니의 요청대로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시어
 기쁨과 충만과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주님의 때가 되어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사형선고를 받으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사의 서막을 여십니다.
 주님, 저희가 때와 방법을 가늠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더 이상 망설이며 미루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펼쳐주시고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저희가 이기적인 탐욕과 죄악을 끊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주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물 한 잔 달라는 예수님의 청에
유다 사람이시면서 왜 내게 물을 청하느냐고 반문하고,
예배를 드릴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고 따지며,
누가 다시 오실 메시아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을 마주하자,
주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안쓰러워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답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시며,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답해 주십니다.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 벳자타 못가의 병자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고

물으시자

병자는 예수님께서 왜 물으시는지도 모른 채 신세타령만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 벳자타 못의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가 치유될 텐데,

난 다른 사람처럼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늘 뒷전이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을는지!’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 성모님과 마주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하며

믿어주시는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똥하고 허황된 탐욕이나 실의나 좌절의 나락에 빠져,

늘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주님을 알아 뵈지 못하는 저희를 구주소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형제자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의 구원사업을 힘차게 이뤄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주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자들은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 기적의 현실을 나눠주는 데 참여하여 의기양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또 나타난 군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혼을 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에는 기적의 혜택을 입은 이들 중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는 키레네 사람 시몬만이 거들뿐입니다.

저희가 영광과 이익이 되지 않고

희생과 고생이 이어지는 순간에도,

“생명의 빵”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형제자매들에게 헌신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자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이르시니,

나이 많은 자들부터 다 떠나가자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시며 죄를 사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인의 죄를 사해주심으로써,

율법대로 사람을 처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용서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수고 수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 드린 베로니카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사해주고
위로하며 채워주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일궈나가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라고 단죄합니다.

늘 예수님 곁을 맴돌며
어떻게든 허물과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깎아 내리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예수님께서서는 또 걸려 넘어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시며,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사람들의 의심과 트집과 모함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말씀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마땅히

기댈 곳조차 없는 예루살렘 부인들과 우리들에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진정 커다란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위로자 주님이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되도록
저희가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라자로의 누이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던 마르타는 실상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라자로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서운하고 안타까워 진이 다 빠져버리는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그제서야 마르타는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가 오늘 여기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물마저 흘리시며
수고 수난하시는 주님께
보람을 안겨드리고 힘을 보태드리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병사들이 예수님께 치욕을 안겨주고 고문하기 위해 옷을 벗기지만,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알몸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주님의 선하심과 무죄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름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있고 또 저희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복음 사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데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임무를 완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기도해주신 것처럼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알아듣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의 정신과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 살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죄값의 제물로 내 놓으신 채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바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인류 구원 의지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주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남겨놓은 환난을

저희 몸으로 채우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실패와 끝으로 보이는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죄를

또 어떤 이들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깨달았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여

매일을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지내는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무덤에 묻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갈 것임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께서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의 씨를 싹 틔우시는 주님,

저희 안에 성령의 불을 놓으시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뵈옵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죽음의 세력에 굴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한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설움에 북받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어

굳건한 신앙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두려워하지 마라(사도 17,24)

- 사도행전의 하느님 나라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유다의 사제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자 당황하여 말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도 없애버리려고만 합니다.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박해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어 악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시작한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주님, 신분상승과 재물축적으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세상의 야욕을 뒤로 하고

공동소유와 적절한 분배를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며,

한마음으로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려는 교회의 노력을

어여뻐 보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며 대사제에게 항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 사제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여,
세상의 요구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주님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교회 공동체의 공정한 배급을 위해
사도들은 일곱 봉사자, 부제들을 뽑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던 어머니에 이어
교회에 봉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 공동체의 보다 큰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선교하며

이웃 사랑을 위한 활동을 많이 늘려

이 땅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스테파노는 의회에 잡혀 들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스테파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스테파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스테파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드렸듯이

오늘 스테파노가 박해를 받아 죽어가며

예수님에 이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주님, 저희도 세상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스테파노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성령을 내려주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신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깁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하나니아스에게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뜬 다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을 닦아드리며 위로합니다.

주님,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오로가 되었듯이 저희도 회개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써 이 땅에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상처 난 주님의 가슴을 위로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리십니다. 유다계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와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사도들은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에 파견하여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에서 기력이 다하여 두 번째 넘어지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영을 내려주시어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과 악의 기세에 억눌려 위축되거나

복음의 열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그라지는 듯하는 복음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복음 사업을 열매 맺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령께서는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견합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키프로스나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모독하며 반박하자,

바오로가 답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을 걱정하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복음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현하게 하시어
저희 스스로 복음의 빛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교회 신자가 되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말 외에
다른 명에는 주지 말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편견과 아집과 분노로
세 번째 넘어지십니다.

우리 교회의 인간적인 선입관과 습관과 규정을 넘어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일구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희가 교회의 규정과 계명에 얽매어
교회를 찾아 주님께 평화와 은총을 청하는 이들을 외면하거나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전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바오로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 저희는 하느님께서 외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살려주신 자녀이므로,

더 이상 재물이나 학력이나 권력으로 표상되는
현실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진리와 구원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살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차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차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고쳐주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에페소인들이 바오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던 은장자들은 바오로를 없애려고 합니다.
바오로는 에페소를 떠나 밀레토스에서 에페소의 원로들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 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늘 사람들에게 반대 받는 표적이 되어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악의 음모와 박해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스스로 지킴으로써

굳건히 주님을 따라 살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는 주님의 뒤를 이어 순교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천사를 시켜 바오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방법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해가 끝난 다음 제자들은 기도와 묵상과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현대에는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걷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섭리와 안배로

저희가 맞이하도록 허락하시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일러주신 복음을 떠올리고
그 말씀의 의미와 정신대로 사랑하여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열매 맺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묻습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대로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탓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소명과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만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묻습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둡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던
그 모습 그대로 실패와 좌절을 겪으십니다.
주님, 저희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때문에 현실 세계의 악에게 살해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밀고했던 유다가
스스로 삶을 마치고 나서
사도들은 열두 번째 사도를 다시 뽑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과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과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빠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무덤에 묻혀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바라시는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깨우치게 해주시고

좋은 사도들을 보내주시어

주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차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차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무서워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며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어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기쁨과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복음을 따르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사도들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도 개인의 부족함과 나약함만을 핑계로

개인생활에 안주하며 머무르지 않고

과감히 세상 구원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며
기꺼이 복음 사업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하느님 나라 십자가의 길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인가 | 2014년 12월 16일

초판 1쇄 | 2014년 12월 **일

지은이 | 심홍보 신부

펴낸이 | 전갑수

펴낸곳 | 기쁜소식

등록일 | 1989년 12월 8일

등록번호 | 제1-983호

136-875 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44(성북동1가)

☎ 02·762·1194-5 FAX 02·741·7673

E-mail: goodnews@hanmail.net

가격 **,000원

ISBN 978-89-6661-076-1 03230